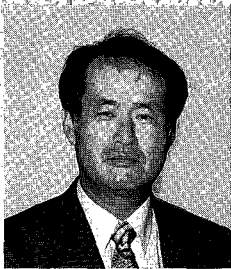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 동강을 가다



김 정 인  
신춘사료(주) 부사장

**산**과 들의 모든 나무와 풀들이 마치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던 지난 5월 하순 연휴를 틈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 정선의 동강길에 나섰다.

지켜야하나 지어야하나 도하 각 신문과 방송

국 등에서 근래 뜨고 있는 곳, 한 번도 기본적으로 없는 필자였기에 주위의 친구들을 설득해서 기회를 만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필자에게는 우리나라 산천 곳곳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후 올해는 지리산 철쭉구경에 뉘이 빠졌고 동강에 거는 기대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 외국 구경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산하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고 이는 많은 외국 친구들도 여러번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

하루종일 돌아본 동강은 역시 아름다웠다. 너무나 한국적인 구비구비 흐르는 강, 산. 그러나 초행길인데도 많이 와 본 것 같은 경치임은 웬일이었을까? 결국 나는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내가 어린시절에는 이곳 동강과 비슷한 곳이 많았었구나. 사십여년전에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풍경. 그러나 지금은 어느곳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다.

가다가 들러본 정선 오일장과 그곳에서 찞고 먹고 앗아 먹은 메밀국수와 전병도 어린시절 뛰놀던 회상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멀리서 볼 때 그토록 아름다웠던 동강은 강변에 가보니 쓰레기 더미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부 물흐름이 느린곳에서는 등이 굽은 기형어가 보이기도 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강을 찾는 사람이 급히 늘고 있어서 이런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놀랐던 것은 댐건설후 수몰 예정지에 사는 주민들은 조속한 댐 건설을, 인근 비수몰지구의 군민들은 자연보호를 외치면서 댐건설을 극구 반대하



고 있었다는 점이다.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포기해야했던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고도 남았다. 조속한 결정이 요망되는 현실인 것이다.

저녁때 우리는 숙소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오늘 돌아보았던 동강과 산들을 토론했다. Y형은 현실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댐 건설은 필요하다. 자연파괴도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다고 하였고 필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어릴 때 자랐던 그 많던 산천은 다 어디가고 시멘트구조물만 남은 한강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해 북평해안 절벽과 그 절경 등등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내 눈을 스쳐갔기 때문이다.

물이 부족하다고 우선 댐부터 짓고 보는 것은 집을 지을 대지가 부족하다고 경복궁, 남대문 열고 집을 짓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변(?)을 하자 모두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웃어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담반 진담반의 내 얘기는 틀린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저런 이유로 생활편의 위주로 기꺼왔던 600년 고도 서울은 이제 세계 어느곳에나 있는 평범하고 근대화된 시멘트 구조물의 도시일 뿐이다. 파리, 로마, 런던, 심지어 이웃 일본도 많은 곳에서 옛건물을 소중히 아끼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결론은 자연이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일단 댐건설은 보류하고 10년이나 20년뒤로 연기해야 할 것이라는 타협적인(?) 결론을 내고 끝났다. 누군가가 오대산 국립공원 입구에 하늘높이 서 있는 모호텔건물이 그 아름답던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려서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옛날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결론이 모아진 것이다.

인간은 자연파괴만 해온 것이 아니고 식품과 피도 하고 있다. 최근 세계가 발칵 뒤집힌 다이옥신 파동도 그러하다. 어느날 저녁 TV 뉴스 시간에 보도된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이 수입돼지고기는 오염이 걱정되어서 먹지 않고 국산 돼지고기만 찾는통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내 축산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곧이어 나온 닭고기의 경우 다이옥신 때문에 소비가 줄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중이라는 것이다. 닭고기를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정주부는 국산닭고기라고해도 수입된 사료로 키운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여기서 도저히 이해안되는 소비자의 심리는 어떻게 누가 해석해 줄 것인지? 그 가정주부는 돼지도 수입된 사료를 먹는다는 것을 몰랐을까?

동강, 그 강과 산은 그곳에도 있었고 내마음 속에도 어린시절의 회상과 함께 있었다. 현실 속의 동강은 이제 그렇게 많지않고 하나둘 파괴되기 시작하고 있다.

한 번 못쓰게 되면 복구는 불가능하다.

다이옥신은 섭취하면 몸에 축적되고 배설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연도, 식품도, 건강도 한 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을 위하여 각종 첨가물 규제를 하고 있다. 육계 출하용 사료나 비육돈 출하용 사료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법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 그러나 찾고 소비하는 양축업자가 별로 없다. 언젠가는 이것이 다이옥신 파동처럼 큰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떠나버릴 소비자-민심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다.

파괴되면 다시 찾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동강. 그러나 환경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생산에 왜 우리들은 무심한 것일까?

아름다운 강산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 건강한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을. **양계**

##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 주간 양계속보

-주간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